

# 진보 논객들이 논하는 30대 자화상 포스트 386세대 위한 문화교양지 <소문> 창간

글\_송보경 기자

민음사에서 문화 무크 <소문>(소통과 문화)을 창간했다. '포스트 386세대를 위한 문화교양지'를 표방한 <소문>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진보 세력임을 자처했던 386세대가 기득권층에 안주한 것에 대한 회의로 21세기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창간 의도를 밝혔다. 천정환(성균관대 국문과 교수), 박경신(고려대), 김현철(이화여대), 이영아(서울대), 영화평론가 김지미 씨 등 30대 학자, 평론가들이 기획위원을 맡고 30대 필진을 앞세워 진보적인 발언창구를 마련하겠다는 날선 취지를 선보이고 있다.

책, 신문, 잡지 등 종이 매체의 퇴보를 우려하는 최근 분위기 속에서 <소문>은 인터넷 공간에 단편적으로 머무는 개개인의 발언을 진전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실험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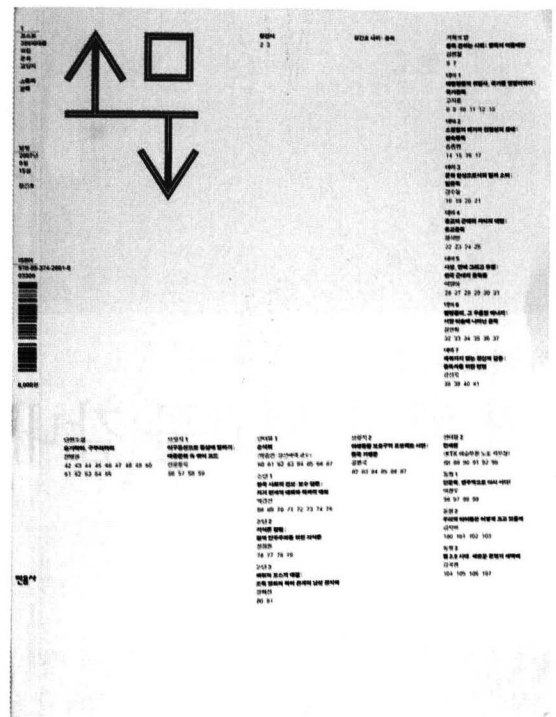
기획위원 대표를 맡은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는 "민주화 운동 세대들의 공동의 지식, 공통 감각을 모으는 장이 부족하다. <소문>은 이러한 지식과 감각을 집약시켜 표현하는 문화잡지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창간됐다"고 전했다.

1년여 준비 끝에 발행된 창간호의 테마는 '중독'이다. 창간사에서 밝힌 "지식인 중심의 논쟁과 담론 구조를 벗어나 개개인의 삶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노력은 테마, 브릿지, 인터뷰, 논단, 동향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

천정환 교수는 "기존 계간지가 문학 중심으로 흘러간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잡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 새로운 감각의 30대 초반 논객들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문화 현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버스 잡상인 상행위에 빗대 설명한 고지훈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의 '국가 중독'을 비롯해 접속, 일, 종교 중독 등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테마를 풀어내고 있다.

또 방송인이자 성신여대 교수인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에 이은 KTX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 민세원 씨와의 인터뷰는 삼십대의 자화상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네 명의 핵심 기획위원을 중심으로 유동적인 필진 구성 및 운영방식을 채택한 <소문>은 일년에 두 번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위원 대표 천정환 교수는 "30대가 문화 정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펼쳐 보일 예정"이라면서 다음호 주제는 성과 가족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 필자들의 원고 이외에도 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 예술장르는 물론 정치,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반 논객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이 실린 원고를 게재할 예정이다.(www.somun.info) ☎